

고구려 西界 접근을 위한 요동성(襄平) 고찰

길이숙

(인하대 융합고고학)

<목차>

- I. 머리말
- II. 연·진장성과 갈석
- III. 한나라 양평과 수성
- IV. 우북평군, 평주
- V. 맺음말

【연구요약】

<광개토태왕 비문>에 기록된 양평도와 영토 경계에 대한 기록, 『삼국사기』 고구려의 요동성이 한나라의 양평성이라는 기록, 고구려가 수당 시기 동서 6천 리라는 『통전』 기록 등이 있다. 본고는 영토가 넓어지기 시작한 광개토태왕 시대의 요동성(양평)의 위치를 고찰하여 고구려 서쪽 경계의 윤곽을 유추해 보았다.

양평은 연진장성의 시작점이다. 본고는 문헌을 바탕으로 연진장성을 특징짓는 것부터 차례로 따라가 보았다. 그중 갈석은 중요한 지표인데, 낭야산의 어느 특정한 봉우리로 생각되며, 현재 연남장성이라 불리는 장성이 조양-양평간 장성으로 인정되어, 양평을 안숙현(서수현)에 비정한다.

공손도의 평주 및 이후 북평군의 변화 상황을 추적했을 때, 평주(북평군)는 보정을 포함한 그 근방으로 보이며, 낙양에서 발견된 낙랑군 수성인들의 묘지명은 당시 양평성의 주인인 고구려 요동성 사람들이 후(북)위와 교류한 증거로 볼 수 있다. 후위 영주에 보이는 양평은 고구려의 요동성이 아닐 것이므로, 이때의 양평은 한의 양평과 지리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보정시 근처를 고구려와 양분하여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고구려의 서쪽 경계는 보정시 일부를 포함한 “발갈 지간”이다.

【주제어】

양평, 요동성, 수성, 갈석(산), 연진장성, 평주

I. 머리말

고구려의 영토는 다른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다. 현재 학계의 통설은 요하를 요수로 인정하고¹⁾, 요동을 요하의 동쪽으로 이해함에 따라 고구려의 서계는 요하를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찍이 윤내현의 난하 연구는 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어 요하를 벗어난 다각도의 고구려 서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복기대,²⁾ 임찬경³⁾ 등은 요하를 넘어선 고구려 지리를 연구하고 있다. 최은형은 “여러 사서를 검토한 결과 한나라 때 고조선과 국경으로 접하고 있던 요동군 양평은 한 이전인 연·진때부터 있던 지명으로 수 개황 원년(581)께 없어졌으며 현재 요양이 아니라 하북성 노룡현 부근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⁴⁾ “요양은 옛 양평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음은 고구려가 요하 동쪽에 있었다고 하는 기존 통념과는 다른 역사적 기록들이다. 이를 토대로 고구려의 역사 강역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수양제는 고구려를 쳐들어오기 전 조서를 내려 고려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다.

23년(612) 봄 정월, “고구려의 작은 무리들이 ... 발갈(渤碣) 사이에 모여들어 ... 저화의 땅[華壤]을 돌아보니 잘라져서 이(夷)의 부류가 되었고, ... 요서를 침범하였다.”⁵⁾ (삼국사기)

동진 이후 그 왕은 평양성에 거주하였다.⁶⁾ ... (그 땅은 후한 시대에 방 2천 리이고, 위나라 때에 이르러 남북으로 점점 좁아져 겨우 천여 리밖에 안 되었다. 수나라 시대에 이르러 점점 커져서, 동서 6천 리가 되었다.)⁷⁾ (통전)

1) 장우순, 문치용, 「고대의 요수와 요동」, 『고조선단군학』 39, (2018).; 김수지, 「민족사학계의 ‘고대요수(遼水)’와 ‘패수(溍水)’ 위치비정 비교 -리지린과 윤내현 학설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와융합』 6, (2020). 참고: 요수를 요하가 아닌 난하, 조백하, 거마하 등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난하’가 요수라고 연구한 학자로는 윤내현, 리지린, U. M. 부턴 등이 있다.

2) 卜箕大, 『韓國古代史の政體』 (동경: 에니시書房, 2018).

3) 임찬경, 「고구려 첫 도읍 위치 비정에 관한 검토」, 『선도문화』 20, (2016); 「612년 고구려-수(隋) 전쟁에서 요수, 요동성, 압록수, 살수, 평양의 위치 비정 - 『중국역사지도집』의 612년 지도 비판 및 재구성 -」, 『국학연구』 24, (2020).

4) 최은형, 「“遼陽은 옛 襄平이 아니다” 역사왜곡 우려되는 ‘요양=양평설」, 『백산학보』 85, 2009. 78쪽.

5) 『三國史記』 卷第二十 高句麗本紀 第八, 嬰陽王, 二十三年, 春正月壬午, 帝下詔曰, “高句麗小醜, 迷昏不恭, 崇聚勃碣之間, 荐食遼瀋之境. 雖復漢魏誅戮, 巢穴暫傾, 亂離多阻, 種落還集, 萃川藪於往代, 播寔繁以訖今. 睇彼華壤, 翦爲夷類, 歷年永久, 惡稔既盈. 天道禍淫, 亡徵已兆. 亂常敗德, 非可勝圖. 掩慰懷姦, 唯曰(日)不足. 移告之嚴, 未嘗面受, 朝覲之禮, 莫肯躬親. 誘納亡叛, 不知紀極, 充斥邊垂, 亟勞烽候. 闕析以之不靜, 生人爲之廢業. 在昔薄伐, 已漏天網, 既緩前禽之戮, 未即後服之誅, 曾不懷恩, 翻爲長惡, 乃兼契丹之黨, 處劉海戍, 習韃韃之服, 侵軼遼西. ...”; 『北史』 卷十二 隋本紀 下 第十二 煬皇帝.; 『隋書』 卷四 帝紀 第四 煬帝 下.

6) 동진(東晉, 317-420), 장수왕의 평양천도

7) 『通典』 邊防二 東夷下 高句麗, 自東晉以後, 其王所居平壤城, (即漢樂浪郡王險城. 自爲慕容皝來伐, 後徙國內城, 移都此城.) 亦曰長安城, 隨山屈曲, 南臨溍水, 在遼東南千餘里. 城內唯積倉儲器械, 寇賊至, 方入同守. 王別爲宅於其側. 其外有國內城及漢城, 亦別都也. 復有遼東、玄菟等數十城, 皆置官

수양제는 고구려가 발해와 갈석 사이(勃碣之間)를 차지하여 화이의 땅(華壤)을 잠식하고, 나아가 요서를 침범하니, 더 참지 못하고 전란을 일으켰다. 두우(杜佑)는 『통전』에서 동진(317-420) 이후로, 수나라 시대에는 고구려 영토의 동서 길이가 6,000리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두 기록에 따르면, 공손씨와 모용씨에게 요동을 잃은 후 고구려가 다시 요동을 확보하기 시작하여 수나라 시기에는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반응할 정도로 영토를 확장했던 것 같다. 시작은 아마도 광개토태왕이 활발히 영토를 확장하던 무렵일 것이다.

광개토태왕 비문에는, “영락(永樂) 5년(395)에 왕이 패려(稗麗)를 토벌”하고,

양평도(襄平道)를 지나 동쪽으로 후성(侯城)·역성(力城)·북풍(北豐)·오비해(五備海)에 와서 영토와 경계를 둘러 살피고, 전렵을 한 후에 돌아왔다.⁸⁾

고 한다. 『삼국사기』에 ‘양평성’은 고구려의 ‘요동성’으로,⁹⁾ 요동성주(遼東城州)가 본래 ‘오렬홀(烏列忽)’이라고 하였다.¹⁰⁾

최진열은 비문을 토대로 395년에 “한진시대 요동군이 고구려의 영토”라고 하였다.¹¹⁾ 또한 ‘양평도’의 ‘도(道)’를 “진한시대와 삼국시대까지 남아있던 현급(縣級) 행정구역”으로서, “현보다 이민족이 많이 사는 행정구역”이라고 설명하였다.¹²⁾ 이러한 ‘도’의 표현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범하는 경로를¹³⁾ 열거할 때 찾아지는데, 모두 (고)조선 및 한나라와 관련된 지명들에 붙어,¹⁴⁾ 이미 고구려가 점유한 영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상으로는 모용희가 요동성을 침략한 405년 이전에 요동성은 고구려의 영토였으며¹⁵⁾, 당시 기록인 광개토태왕 비문상으로는 395년 이전에 양평 및 후성(侯城)·역성(力城)·북풍(北豐)·오비해(五備海)가 모두 고구려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¹⁶⁾

따라서 본고는 광개토태왕 시기에 보이는 요동성 즉 한나라 양평성의 위치를 찾아

司以相統攝焉。(其地後漢時方二千里。至魏南北漸狹，纔千餘里。至隋漸大，東西六千里。)

8) 『廣開土王陵碑』 원문(<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 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稗麗不臣人，躬率往討。過富山▼山，至鹽水上，破其三部落六七百營，牛馬群羊，不可稱數。於是旋駕，因過襄平道，東來侯城，力城，北豐，五備海，遊觀土境，田獵而還。

9)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第八，嬰陽王，諸軍乘勝，進圍遼東城，則漢之襄平城也.; 『資治通鑑』卷一百八十一，隋紀五 煬皇帝，(大業八年(612) 三月) 癸巳。

10) 『三國史記』卷第三十七雜志 第六，遼東城州，李烏列忽。

11) 최진열, 「후연(後燕) ‘용성시대(龍城時代)’의 정치적 · 경제적 자멸(自滅)」, 『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110-116쪽.

12) 최진열(2016), 112-116쪽.

13) 『隋書』卷四 帝紀 第四 煬帝 下，(大業)八年(612) 春正月辛巳...; 『資治通鑑』卷一百八十一 隋紀五 煬皇帝 (大業八年(612) 五月 壬午); 『삼국사기』卷第二十高句麗本紀 第八 嬰陽王。

14) 부여도, 낙랑도, 요동도, 옥저도, 현도도, 양평도, 갈석도, 수성도, 증지도 등

15)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第六，廣開土王，十四年，春正月，燕王熙來攻遼東城。且陷，熙命將士，“毋得先登。俟剗平其城，朕與皇后乘輦而入。”由是，城中得嚴備，卒不克而還。

16) 임기환,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고구려발해연구』 45.(2013): 78쪽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장악은 광개토왕 즉위 이전 즉 고국양왕대인 386년에서 고국양왕이 사망한 해인 391년 사이로 추정된다.”; 양평, 후성, 역성, 북풍은 시대에 따라 요동군에 속하였던 지명들이다.

봄으로써 동서 6,000리 고구려 영토의 서쪽 경계를 유추해 보려고 한다.

“양평은 중국 춘추전국시절 연나라 소왕(昭王, 전312-전279)때 생겨”¹⁷⁾ 즉 진개가 동호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고, “조양에서 양평까지 장성을 쌓았다.”는 기사가 양평을 알린 처음으로¹⁸⁾ 연장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점이 된다. 한나라 때에는 요동군에 속하였고, 이후로 공손씨가 양평과 관련이 있으며 모용씨와 더불어 요동을 다스렸다. 연장성과 한나라 양평, 공손씨의 평주를 살펴 양평의 위치를 추적할 것이다.

주로 문헌을 기준으로 하되, 당시 지역 상황을 참고하고, 지도를 활용하되, 유적, 유물 등 고고학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II. 연·진장성과 갈석

양평은 연나라의 진개가 흉노(동호, 조선)를 물리치고 쌓은 장성의 시작점 혹은 끝점이다. 상곡군의 조양에서 양평까지 장성을 쌓았다.

연나라는 또한 장성을 조양에서 양평까지 쌓았고, 상곡(上谷), 어양(漁陽), 우북평(右北平), 요서(遼西), 요동(遼東)을 설치해 호(胡)를 막았다.¹⁹⁾ (사기)

이후에 진(秦)나라가 여섯 나라를 멸망시키고 시황제가 몽염(蒙恬)에게 십만의 군사를 주어 북으로 흉노[胡]를 치게 해 ... 수선할 수 있는 것을 손보아 임조(臨洮縣)에서 요동까지 만여 리에 이르렀다.【정의】괄지지(括地志), 민주(岷州城) 서쪽 12리에서 시작하여, 만여 리에 뻗어 동으로 요수에 들어간다.)²⁰⁾ (사기)

진나라도 흉노를 물리치고 장성을 쌓았다. 그중 조양에서 양평까지는 연나라가 쌓은 구간이다. 그런데 동단의 지명이 한결같지 않다. 모두 한군데를 지칭하는 것이겠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양평이란 지명은 보이지 않는다.

『사기』에서는 장성이 “요동군까지 만여 리”, 『괄지지』에서는 “동으로 요수에 들어간다.”, 『진서』에서는 “낙랑군 수성현이 진이 쌓은 장성이 일어난 곳”이라고 하였다.²¹⁾ 또 『태강지리지』에서는 “낙랑군 수성현(遂城縣)에 갈석산이 있고,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라 하였다.²²⁾ 『수경주』에서는 “진시황이 태자 부소와 몽염장군에게 명하

17) 최은형, (2009), 59쪽

18) 『史記』卷一百十 匈奴列傳 第五十, 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與荊軻刺秦王 秦舞陽者, 開之孫也.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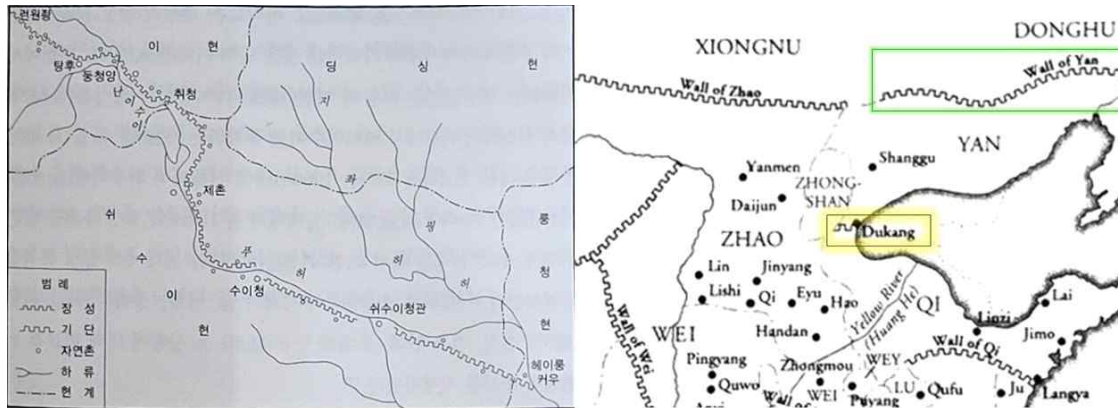
19) 『史記』卷一百十 匈奴列傳 第五十,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索隱】韋昭云: 「今遼東所理也.」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20) 『史記』卷一百十 匈奴列傳 第五十, 後秦滅六國, 而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衆北擊胡, 悉收河南地. 因河爲塞, 築四十四縣城臨河, 徙適戍以充之. 而通直道, 自九原至雲陽, 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治之, 起臨洮至遼東萬餘里. 【索隱】韋昭云: 「臨洮, 隴西縣.」【正義】括地志云: 「秦隴西郡臨洮縣, 卽今岷州城. 本秦長城首, 起岷州西十二里, 延袤萬餘里, 東入遼水.」

21) 『晉書』卷十四 志 第四 地理上, 樂浪郡(漢置 統縣六 戶三千七百) 朝鮮(周封箕子地) 屯有 渾彌 遂城 (秦築長城之所起) 鏤方 驪望

여 장성을 쌓게 했다. 임조에서 시작하여 갈석에 이르렀다.”고 하였다.²³⁾ 『무경총요』에서는 “광신군(廣信軍)의 치소는 수성현이다. 전국 시기 무수현(武遂縣) 땅이다. 진이 쌓은 장성이 일어난 곳이라 수성이라”고 하였다.²⁴⁾

진장성의²⁵⁾ 동단은 요동군, 요수,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 갈석, 무수현 등이다. 군이 양평을 적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양평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양평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그림1> 연남장성,²⁶⁾ 연장성과 당시 해안선²⁷⁾

위 지도는 오늘날 주로 연남장성(燕南長城)이라고 불리는 연나라 장성의 지도이다. 장성 유적지가 연하도(燕下都) 남쪽에 있다. 그래서 이곳을 연남장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호를 막는 장성이 당연히 북쪽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른쪽 지도에는 북쪽에 연장성을 따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연은 동쪽으로 조선·요동”이 있다.²⁸⁾ 조선을 방비하려면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溟水)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동쪽을 방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흉노를 막으려고 한다면, 서쪽으로 장성을 쌓아야 상식적이다. <그림1>에 보이는 연(북)장성은 명나라 때 쌓은 장성보다도 길다. 연소왕(燕昭王)이 전성기를 구가하였지만, 소왕 당대에 끝났고, “조·연전쟁에 관한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고조선의 서쪽 국경은 전쟁 뒤에도 전쟁 전과 거의 같은 지역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국경이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은 고조선은 빼

22) 『史記』卷二 夏本紀 第二, 鳥夷皮服. 夾右碣石, (【索隱】... 太康地理志云「樂浪遂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

23) 『水經注』河水 3, 始皇令太子扶蘇與蒙恬築長城, 起自臨洮, 至于碣石

24) 『武經總要前集』邊防一上, 廣信軍, 治遂城縣, 戰國時武遂縣地, 秦築長城所起, 因名遂城. 宋建軍.

25) 본고에서 연진장성, 연장성, 진장성(조양-양평구간), 연남장성은 모두 한 곳을 말한다.

26) 귀다순(郭大順), 장성덕(張星德), 김정열(역), 『동북문화와 유연문명·하』, (서울:동북아역사재단, 2008.), 1071쪽, 5.1-27 연남장성 위치도

27) Michael Loewe and Edward L. Shaughnessy,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636, Map 9.2. The expansion of Qin ca. 350-249 B.C.; 『戰國策』卷第三十一 燕 三. 독항(督亢) 참고

28) 『戰國策』卷第二十九 燕一, 蘇秦將爲從, 北說燕 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앗겼던 국토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연나라의 영토 일부를 차지했다는 뜻이 된다.”²⁹⁾ 따라서 이후로 연이 북쪽에 장성을 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연은 왜 도읍의 남쪽에 장성을 쌓았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동호가 연하도(燕下都)보다 남쪽이나 서쪽에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북방족은 지금 우리의 통념보다 남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련산을 천산(天山)이라고 하는 흉노의 경우가 그렇고,³⁰⁾ 백적(白狄) 선우부(鮮虞部)가 세운 중산국(中山國)이 그렇다.³¹⁾ 동호의 경우도 『진서』에 기록이 보이는데, 호삼성에³²⁾ 의하면, 동호가 자몽이라는 거란(요나라) 남쪽 경계에 있는 들에 살았다고 한다.

모용외(慕容廆)의 자는 혁낙괴(奔洛瑰)이다. 창려(昌黎) 극성(棘城)의 선비인(鮮卑人)이다. 선조는 유웅씨(有熊氏)의 후손이다. 대대로 북이(北夷)에 살며, 자몽(紫蒙)의 들에 읍(邑)을 삼으니 동호(東胡)이다.³³⁾ (진서)

『진서』에 실린 기록에 근거하면 진·한(秦·漢) 기간에 동호가 자몽의 들에 읍을 이루고 살았다. 『당서』 지리지: 평주(平州)에 자몽, 백랑(白狼), 창려 등의 수(戍)가 있다.³⁴⁾ 모두 평주의 북쪽, 거란의 남쪽 경계이다.³⁵⁾ (자치통감)

29) 윤내현. 「朝·燕戰爭의 전개와 국경 변화」. 『고조선단군학』 20, (2009). 248쪽.



30) <위키백과> 치렌산맥

31) 1974년, 하북성(河北省) 평산현(平山縣) 삼급(三汲) 일대에서 영수(靈壽) 고성 유적이 발굴되어, 중산국의 왕릉과 성터가 확인되었다. 조나라 무령왕은 호복과 기마 전술을 도입하여 중산국(中山國)을 멸망시킨다.(전307-전296)

32) <위키백과> 胡三省(1230 - 1302) 중국 남송(南宋) 말기에서 원(元) 초기에 걸쳐 생존했던 역사학자.

33) 『晉書』 卷一百八 載記 第八, 慕容廆字奔洛瓌, 昌黎 棘城 鮮卑人也. 其先有熊氏之苗裔, 世居北夷, 邑于紫蒙之野, 號曰東胡.

34) 『新唐書』 志第二十九 地理三, 平州北平郡, 下. 初治臨渝, 武德元年徙治盧龍. 土貢: 熊[口]郭、蔓荊實、人. 戶三千一百一十三, 口二萬五千八十六. 縣三: 有府一, 曰盧龍. 有盧龍軍, 天寶二載置; 又有柳城軍, 永泰元年置; 有溫溝、白望、西狹石、東狹石、綠疇、米磚、長楊、黃花、紫蒙、白狼、昌黎、遼西等十二戍, 愛川、周夔二鎮城: 東北有明埵關、鵠湖城、牛毛城. 盧龍, 中. 本肥如, 武德二年更名, 又置撫寧縣, 七年省. 石城, 中. 本臨渝, 武德七年省, 貞觀十五年復置, 萬歲通天二年更名. 有臨渝關, 一名臨閭關; 有大海關. 有碣石山; 有溫昌鎮. 馬城, 中. 古海陽城也, 開元二十八年置, 以通水運. 東北有千金冶; 城東有茂鄉鎮城.

35) 欽定四庫全書 『資治通鑑』 卷二百十四(宋 司馬光, 撰胡三省 音注), 紫蒙川(據晉書載記 秦漢之間 東胡邑于紫蒙之野 唐書地理志 平州有紫蒙白狼昌黎等戍 盖平州之北境契丹之南界也)



<그림2> 요와 송의 경계³⁶⁾

진한지간에 동호가 요와 송(평주 북쪽)의 경계에 있었다는 호삼성의 주석을 참고하면, 연소왕 시기 진개가 동호를 물리쳐 1000리의 땅을 빼앗았다고 하는 곳은, 담기양이 작성한 지도 <그림2>에서 봤을 때, 신기하게도 연장성 근방에서 찾을 수 있다. 연장성 축성(전3세기초)과 연의 멸망(전222)은 1세기도 차이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성은 당시 동호의 무리가 있는 자몽의 들에 쌓은 것이 맞다고 하겠다.

연장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갈석이다. 수양제는 고구려가 “발갈 사이에 몰려들었다”고 했는데, ‘발갈지간’은 전국시대 연의 지경을 정의할 때도 쓰였다.

대저 연은 발해와 갈석산 사이에 있는 (【정의】 발해와 갈석산 서북쪽에 있다.) 큰 고을이다.³⁷⁾ (사기)

고대에 두 개의 연이 있었는데, 발갈지간의 연은 “희성(姬姓)의 나라로, 도읍은 계(薊)이고, 전국시대에는 무양(武阳, 현재 하북성 역현 남쪽)을 하도(下都)로” 삼았다.³⁸⁾ 연의 전성기인 소왕 시기, 소왕은 널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황금대를 설치하였는데, 그 유적지가 지금 연하도에서 약간 서남향에 있다.³⁹⁾

남으로 갈석산에 올라 멀리 황금대(黄金台)를 바라보다.
언덕에는 교목이 가득하고, 소왕은 편안하구나.⁴⁰⁾ (전당시)

36) 譚其驤(主編), 『中国历史地图集』第六册(朱辽金时期), (북경: 中国地图出版社出版, 1996), 10-11.

37) 『史記』卷一百二十九 貨殖列傳 第六十九, 夫燕亦勃·碣之間 (【正義】勃海·碣石在西北.) 一都會也.

38) 『中国古今地名对照表』燕 - 古有两燕国, 一为周同姓(姬)国, 都薊(今北京城西南隅), 战国时又以武阳(今河北易县南)为下都. 另一为姑姓国, 在今河南延津东北, 后人称南燕.

39) 『中国古今地名对照表』, 黄金台 - 燕昭王招贤所筑, 在今河北易县东南的北易水南. 今北京市、徐水、满城、定兴均有黄金台, 乃后人依托.; 황금대가 여러 곳에 있었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연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40) 『全唐詩』卷八十三 薊丘覽古贈盧居士藏用七首: 燕昭王, 南登碣石阪, 遙望黄金台. 丘陵盡喬木, 昭王安在哉.

시인은 황금대 남쪽 갈석산에서 소왕의 황금대를 노래하고 있다. 발갈지간의 ‘갈’석산이 황금대 남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발’은 발해이며, 오늘날의 바다인 발해일수도 있고, 내륙해(내륙택)나 호수일 수도 있고,⁴¹⁾ 발해군(渤海郡)일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정도로 이해하고, 다루지 않겠다. 황금대 남쪽에 있는 눈에 띄는 산으로는 낭야(狼牙山)가 있다.

장수절은 사기정의에서⁴²⁾ “勃海·碣石在西北”이라고 주석하여 당나라인이 인식한 연의 위치를 보여주었다. 이를 『한국고대사료DB』에서는 “(연이) 발해와 갈석산 서북에 있다.”로 번역하였으나, “발해·갈석은 (연의) 서북에 있다.”⁴³⁾로도 해석이 된다.



<그림3> 연하도와 황금대, 연하도와 수성진, 난하 하구

<그림3>은 연하도를 중심으로 황금대의 위치와 연장성의 동단 수성진, 창려 갈석이 있는 난하 하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지도이다. 연이 서북쪽에 있든, 발해·갈석이 서북쪽에 있든 현재 갈석으로 통설화되어 있는 창려 갈석과는 거리도 멀고 방위도 맞지 않는 그림이 그려진다.

창려 갈석이 갈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상서(尙書)』 우공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태행산과 향산에서 갈석산에 이르러 (百川이) 해(海)로⁴⁴⁾ 들어간다.⁴⁵⁾

[疏] 항수(恒水)·위수(衛水)·호타수(滹沱水)·구수(滹水)·역수(易水)는 향산(恒山)과 갈석산(碣石山)에 가깝다.⁴⁶⁾ (상서)

41) 이기훈, 「평양과 발해만 북부 갈석산 비정의 문제점 - 진·한(秦·漢) 시기 발해(渤海)와 요동(遼東)의 위치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고대학』 72, (2023).

42) 장수절(張守節) 저술. 당 개원 24년(736) 저작.

43) 이기훈은 “발은 발해이며, 갈석은 서북쪽에 있다”로 해석하였다.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북경으로 비정하는 연(燕)의 위치는 원래 갈석산이 있던 황하 인근의 연(燕)이 아니라, 당(唐) 시기(730년)에 유주(幽州) 3현을 분리해 연(燕)의 수도였던 계(薊)와 이후 연에 속했던 어양(漁陽)을 설치하고 얼마 후 다시 계(薊)로 바꾸면서(758년) 위치가 북쪽으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기훈, (2023), 145~146쪽.

44) ‘해(海)’가 (발해, 내륙택, 하, 해하, 바다 등 중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큰물’이나 ‘해(海)’로 표기한다.

45) 『尙書注疏』 제6권 夏書禹貢 第一, …(大)[太]行恒山 至于碣石 入于海. [傳]此二山은 連延東北하여 接碣石而入滄海라 百川이 經此衆山이니 禹皆治之나 不可勝名이라 故로 以山言之라

산줄기가 태행산에서 향산, 향산에서 갈석산으로 이어지는데, 우공 시절에는 큰물(海)이 근처에 있어서 향산과 갈석산 근처의 많은 물줄기(현재 하북성을 흐르는 강들이다.)가 갈석산 아래 해(海)로 흘러 들어갔다. <그림4>에서 향산 동쪽으로 5개의 물줄기를 모두 볼 수 있다. 다만 갈석이 난하 아래 해(海)상에 있어 어느 시기부터인가 갈석 위치가 크게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아래부터) 호타하, 위수, 향수, 구수, 역수⁴⁷⁾

갈석산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바다로 들어간다. (【集解】서광(徐廣)이 말했다. “‘海’는 어느 판본에는 ‘河’라고 되어 있다.”⁴⁸⁾ 【索隱】지리지에서 말하길 “갈석산은 북평(北平郡) 여성현(驪城縣)의 서남에 있다.”라고 하였고, 『태강지리지』에서 말하길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수경』에서 말하길 “요서군 임유현(臨渝縣)의 남쪽 강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갈석산은 두 곳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갈석산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바다(海)로 들어간다”란 마땅히 북평에 있는 갈석을 말한 것이다.)⁴⁹⁾ (사기)

“향산은 북악으로 중산 곡양현 서북쪽에 있다. 갈석산은 요서 임유현 남쪽 물속에 있다. 우(禹)가 그 돌을 뚫어 오른쪽으로 끼고 황하를 받아들이게 했다. 진시황과 한무제가⁵⁰⁾ 일찍이 모두 올랐는데, 바닷물(海水)이 서쪽을 침범하여 세월이 흐르면 서 심해지니, 그 산을 삼켰으므로 물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⁵¹⁾ (수경주)

46) 『尚書注疏』 제6권 夏書禹貢 第一, [疏]謂漳·滏·汾·涑, 在壺口·雷首·大[太]行, 經底柱·析城, 濟出王屋, 淇近大[太]行, 恒·衛·潞·洹·滹·易, 近恒山·碣石之等也.

47) 長久保赤水(Nagakubo, Sekisui)著, 『唐土歷代州郡沿革地圖』, (1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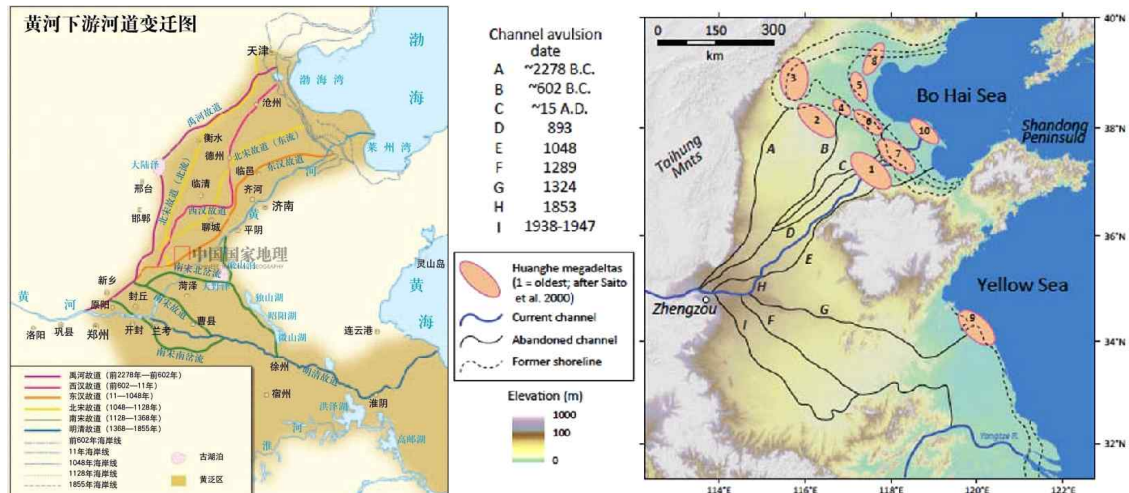
48) 『尚書注疏』 제6권 夏書禹貢 第一, 鳥夷皮服 夾右碣石入于海

49) 『史記』 卷二 夏本紀 第二, 鳥夷皮服. 夾右碣石, (【集解】孔安國曰 : 「碣石, 海畔之山也.」) 入于海. 【集解】徐廣曰 : 「海, 一作『河.』」 【索隱】地理志云「碣石山在北平驪城縣西南.」 太康地理志云「樂浪遼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 又水經云「在遼西臨渝縣南水中.」 蓋碣石山有二, 此云「夾右碣石入于海.」, 當是北平之碣石.)

50) 중국 산둥성 빈주시 무체현에도 갈석이 있다.

51) 『水經注』 卷四十, 禹貢山水澤地所在, 恒山為北嶽, 在中山上曲陽縣西北, 碣石山在遼西臨渝縣南水中也. 大禹鑿其石, 夾右而納河. 秦始皇、漢武帝皆嘗登之, 海水西侵, 歲月逾甚, 而苞其山. 故言水中矣.

갈석산을 끼고 바다(海) 또는 하(河)로 들어간다고 하니,⁵²⁾ 갈석산은 분명 큰물 근처에 있을 것이다. 『사기색은』에서 인용한 『수경주』를 다시 살펴보면, 바닷물이 갈석산을 삼켜서 해(海)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해안선이 물러나, 땅도 새로 생기고, 호수의 크기도 줄어들면서, 갈석에서 해(海)가 보이지 않게 된 상황을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다. <그림5>는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림5> 황하하류하도변천도와⁵³⁾ 해안선의 변화⁵⁴⁾

학자들은 구하(九河)의 물길과 갈석을 오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갈석을 해안가에서 찾았고, 그렇게 되면 갈석 및 요수, 요동 등 지리에 착오가 생긴다. 창려 갈석은⁵⁵⁾ 대표적인 예이다. 우공 시절 이후 전후한까지도 낭야산에서 큰물이 보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물이 물러나, 연장성 갈석에서 해(海)가 보이지 않자 당나라 시대가 되면 좌갈석, 우갈석으로 갈석을 규정하는 데 혼동을 보인다.

갈석산은 한나라 낙랑군 수성현에 있다.⁵⁶⁾ 장성이 이 산에서 일어났다. 지금 그 증거로 장성이 동쪽으로 요수를 끊고 고구려로 들어간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상서』를 살펴보면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황하로 들어간다.”는 우갈석은 황하가 해(海)로 나가는 곳에 있다. 지금 북평군 남쪽 20여 리에, 고구려 가운데 좌갈석이 되었다.)⁵⁷⁾ (통전)

52) 劉安(淮南王 劉安, 기원전 179년 ~ 기원전 122년), 欽定四庫全書『淮南鴻烈解』卷第四 墜形訓, 何謂六水曰河水赤水遼水黑水江水淮水(... 遼水出碣石山自塞北東流直遼東之西南入海..., 요수는 갈석산에서 나와 요새에서 북동류하여 곧장 요동의 서남으로 흘러 해(海)로 들어간다.)

53) 2011년

54) Zhuang, Yijie & Kidder, Tristram. “Archaeology of the Anthropocene in the Yellow River region, China, 8000–2000 cal. BP.” *The Holocene*, 24 (2014), p. 1603.

55) 창려갈석은 요·송 시기나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6) 『漢書』卷二十八下 地理志 第八下, 右北平郡; 갈석산은 여성현(驪成縣)에 있다.

57) 『通典』卷一百八十六 邊防二, 東夷下 高句麗, 碣石山在漢樂浪郡遂城縣 長城起於此山 今驗長城東截

그 갈석산은 한나라 낙랑군 수성현에 있으며, 수성현은 장성이 일어난 곳이다. “장성이 동쪽으로 요수를 끊고”라고 하여 갈석, 수성, 장성, 요수가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수는 흔히 요하로 인정되며, 난하나 다른 강으로도 비정하고 있다. 산해경에는 요수(遼水)를 요수(潦水)로 표기하였다.

요수(潦水)는 위고산(衛臯山)의 동쪽에서 나온다. (경계 바깥의 위고산이다. 현도군 고구려현에 요산(潦山)이 있는데 소요수가 여기에서 나온다. 서하의 남쪽으로 대요가 흘러들어가는데, 그 독음은 ‘遼’이다.) 동남쪽으로 발해로 흘러가 요양(潦陽)으로 들어간다.⁵⁸⁾ (산해경)



<그림6> 요수촌⁵⁹⁾

위고산은 (위)백평산의 오기로 보인다.⁶⁰⁾ 현재 중역수와 남역수 사이, 폭하 근처에 요수촌(潦水村)이 실재하고 있다.⁶¹⁾ 중국의 <백도지도>에서 요수촌을 찾을 수 있고, <구글지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수촌은 폭하 인근에 있는데, 남역수라고도 하며, 수성진과 서수현을 흐르는 강물이다. 연장성과 갈석, 요수가 함께 찾아진다.

이상, 남역수 근처에 요수촌이 있고, 수성에는 연장성 유지가 있으며, 당시 해안선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해(큰물, 海)가 태항산맥과 가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갈석은 항산 북쪽 낭야산으로 볼 수 있다. 낭야산 줄기에 있는 어느 봉우리, 갈석으로 특정된 곳에서 해(海)가 보였을 것이다.

또한 “장성이 이 산에서 일어났다. 지금 그 증거로 장성이 동쪽으로 요수를 끊고

遼水而入高麗遺址猶存(按尚書云夾右碣石入於河 右碣石即河赴海處 在今北平郡南二十餘里則高麗中為左碣石)

58) 『山海經』海經新釋卷八 山海經第十三 海內東經, 潦水出衛臯東。(出塞外衛臯山, 玄菟高句驪縣有潦山, 小潦水所出。西河(南)注大潦, 音遼。)東南注渤海, 入潦陽。

59) <百度地圖> 河北省保定市易縣塘湖鎮潦水村; <구글지도>; <百度百科> 中易水 (좌-우)

60) 『後漢書』志第二十三 郡國 五, 玄菟郡 武帝置。... 高句驪 遼山, 遼水出。(山海經曰:「遼水出白平東。」郭璞曰:「出塞外(衛)[衛]白平山。遼山, 小遼水所出。」西蓋(鳥)[馬]) 上殷台 高顯故屬遼東。候城故屬遼東。遼陽故屬遼東。

61) 장우순, 문치웅, 「고대의 요수와 요동」, 『고조선단군학』 39, (2018), 186-188쪽.

고구려로 들어간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니, 요수와 장성과 고구려의 서쪽 강역은 이곳 수성(遂城) 연장성(燕長城)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Ⅲ. 한나라의 양평

『사기』에는 한나라가 연장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기록되어 있다.

마읍의 전투가 있는 지 5년 후(전129) 가을, 한나라에서는 네 장군에게 각각 만 기씩을 주어 관시(關市) 부근의 흉노를 치게 했다. ... 이에 한나라는 마침내 하남 땅을 빼앗아 삭방(朔方郡)을 [설치하고 성을] 쌓고 다시 옛날 진나라 장군 몽염이 구축했던 장성을 수리하여 황하를 따라 [방비를] 굳게 하였다. 한나라는 또한 상곡의 [북방에 흉노와] 가까운 현인 조양 땅을 버리듯이 흉노에게 내주었다. 이 해가 한의 원삭(元朔) 2년(전127)이었다.⁶²⁾ (사기)

연나라의 전성기에,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국경에 성과 요새를 쌓았다. 진(秦)이 연을 멸한 뒤에는 [그곳을] 요동외요에 소속시켰는데, 한(漢)이 일어나서는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溍水)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하여 연에 복속시켰다.⁶³⁾ (사기)

한나라는 몽염이 쌓은 진장성의 방비를 굳게 하였지만, 연장성 구간의 또 다른 시작점인 조양은 흉노에게 빼앗기고,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溍水)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하여 연에 복속시켰다.”

역대로 중국의 국가들은 서안에 도읍을 두었다. 한은 흉노를 물리치기 위해 서역의 대월지와 동맹을 맺을 목적으로 장건(張騫)을 파견하면서, 신기한 물자를 접하게 되었다.⁶⁴⁾ 그러나 요동은 서역에 비해 물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지극히 먼 곳에 있는 변경이었다.⁶⁵⁾ 따라서 노관(盧綰)과 위만(衛滿)의 반역으로, 요동 지역에 흉노의 위협

62) 『史記』卷一百十 匈奴列傳 第五十, 自馬邑軍後五年之秋, 漢使四將軍各萬騎擊胡關市下. ... 於是漢遂取河南地, 築朔方, 復繕故秦時蒙恬所爲塞, 因河爲固. 漢亦棄上谷之什辟縣造陽地以予胡. 是歲, 漢之元朔二年也.

63) 『史記』卷一百一十五 朝鮮列傳 第五十五, (朝鮮【集解】張晏曰:「朝鮮有濕水·洌水·汕水, 三水合爲洌水, 疑樂浪·朝鮮取名於此也.」【索隱】案, 朝音潮, 直驕反. 鮮音仙. 以有汕水, 故名也. 汕一音訕.) 朝鮮【正義】潮仙二音. 括地志云:「高驪都平壤城, 本漢 樂浪郡 王險城, 又古云朝鮮地也.」) 王滿者, 故燕人也. (【索隱】案漢書, 滿, 燕人, 姓衛. 擊破朝鮮而自王之.) 自始全燕時, (【索隱】始全燕時, 謂六國 燕方全盛之時.) 嘗略屬眞番【集解】徐廣曰:「一作莫. 遼東有番汗縣. 番音普寒反.」【索隱】徐氏 據地理志而知也. 番音潘, 又音盤. 汗音寒.) 朝鮮【索隱】如淳云:「燕嘗略二國以屬己也.」應劭云:「玄菟本眞番國.」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溍水爲界, (【集解】漢書音義曰:「溍音傍沛反.」【索隱】溍音旁沛反. 【正義】地理志云溍水出遼東塞外, 西南至樂浪縣西入海. 溍音大反.) 屬燕.

64) 張騫(?-전114). 후한은 반초를 서역에 파견해 끊어진 실크로드 무역길을 복원하였고, 이후 당은 실크로드를 통해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65) 한의 중심지 한중시에서 서수현은 아주 먼 거리이다. 서안은 한중시보다 동북쪽에 있지만 먼 것은 여전하다.

이 증가하기 전에는, 요동에 큰 신경을 쓰지 못했다. 위만조선을 침공한 배경에는 그들이 흉노와 내통하여 한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한은 위만을 멸한 후 낙랑, 임둔, 진번, 현도의 4군을 설치했다. 이후 임둔과 진번은 낙랑과 현도에 소속되었고, 현도도 규모가 줄었다. 가장 큰 낙랑은 (위만)조선 지역이었다. 초기에는 위만이 차지한 지역을 크게 점유한 것 같으나, 이후로 점차 빼앗긴 상황이다. 그리하여 현도는 요동 근처에서 명맥을 유지하였다.

고구려의 요동성은 한나라의 양평이다. 현재 양평에 대한 통설은 요하 동쪽 태자하 북쪽의 요양으로 굳어있다.⁶⁶⁾ 하지만 『한서』 지리지에는 요동군에 양평현과 요양현이 각기 기록되어 있어, 양평이 요양이고, 요양이 요동성이라는 근거가 희박하다.

요동군(遼東郡)은, 진(秦)이 설치하였다. 유주(幽州)에 속한다. 가구는 55,972호이고, 인구는 272,539명이다. 18개 현이다.

양평현(襄平縣); 목사관(牧師官)이 있다. 왕망은 창평(昌平)이라 하였다.

신창(新昌), 무려(無慮), 망평현(望平縣), 방(房), 후성(候城) 요수(遼隧), 요양현(遼陽縣), 험독현(險瀆縣), (응소는, “조선왕(朝鮮王) 만(滿)의 도읍이다.), 거취현(居就縣); 실위산(室僞山)에서 실위수(室僞水)가 나와 북쪽으로 양평현(襄平縣)에 이르러 양수(梁水)로 들어간다. 오현현(高顯縣), 안시현(安市縣), 무차현(武次縣), 평곽현(平郭縣), 서안평현(西安平縣), 문현(文縣), 번한현(番汗縣), 답지현(答氏縣)이 있다.⁶⁷⁾ (한서)

『한서』의 요동군 양평현에 목사관 있고, 요동의 치소일 가능성이 있다.⁶⁸⁾ 광개토대



66) 최은형, 「“遼陽은 옛 襄平이 아니다” 역사왜곡 우려되는 ‘요양=양평설’」, 『백산학보』 85, 2009. 참고

67) 『漢書』卷二十八下 地理志 第八下, 遼東郡, 秦置。屬幽州。戶五萬五千九百七十二, 口二十七萬二千五百三十九。縣十八: 襄平, 有牧師官。莽曰昌平。新昌, 無慮, 西部都尉治。應劭曰: 「慮音閭。」師古曰: 「即所謂醫巫閭。」望平, 大遼水出塞外, 南至安市入海, 行千二百五十里。莽曰長說。師古曰: 「說讀曰(悅)(悅)。」房, 候城, 中部都尉治。遼隧, 莽曰順陸。師古曰: 「隧音遂。」遼陽, 大梁水西南至遼陽入遼。莽曰遼陰。險瀆, 應劭曰: 「朝鮮王滿都也。依水險, 故曰險瀆。」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浪水之東, 此自是險瀆也。」師古曰: 「瓚說是也。浪音普大反。」居就, 室僞山, 室僞水所出, 北至襄平入梁也。高顯, 安市, 武次, 東部都尉治。莽曰桓次。平郭, 有鐵官、鹽官。西安平, 莽曰北安平。文, 莽曰(受)[文]亭。番汗, 沛水出塞外, 西南入海。應劭曰: 「汗水出塞外, 西南入海。番音盤。」師古曰: 「沛音普蓋反。汗音寒。」答氏。應劭曰: 「氏水也。音長答反。」師古曰: 「凡言氏者, 皆謂因之而立名。」

68) 『史記』卷一百十 匈奴列傳 第五十, 襄平。【索隱】韋昭云: 「今遼東所理也。」

왕 비문에 있는 양평과 후성이 요동군 소속이다. 역성(力城)은 『진서』 요동국(遼東國)에 양평, 문(汶), 거취, 낙취(樂就), 안시, 서안평, 신창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⁶⁹⁾ 『삼국지』 위서(魏書) 제왕기(齊王紀)에는 요동에 북풍(北豐)현이 보인다.⁷⁰⁾

낙랑군(樂浪郡)은, 무제 원봉(元封) 3년에 개척하였다. 왕망은 낙선(樂鮮)이라 하였다. 유주에 속한다. (응소는, “옛 조선국(朝鮮國)이다.”라고 하였다.) 호수는 62,812 호이고, 인구는 406,748인이다. 운장(雲鄣)이 있다. 25개 현이 속해 있다.

조선현(朝鮮), 남감현(訃邯縣), 패수현(溍水縣), 함자현(含資縣), 점제현(黏蟬縣), 수성현(遂成縣), 증지현(增地縣), 대방현(帶方縣), 사망현(駟望縣), 해명현(海冥縣), 열구현(列口縣), 장잠현(長岑縣), 둔유현(屯有縣), 소명현(昭明縣), 누방현(鑊方縣), 제해현(提奚), 혼미현(渾彌), 탄열현(呑列縣), 동이현(東暉縣), 불이현(不而縣), 잠태현(蠶台縣), 화려현(華麗縣), 사두매현(邪頭昧縣), 전막현(前莫縣), 부조현(夫租縣).⁷¹⁾

낙랑군은 25개 현에 인구는 약 40만으로 요동보다 크다. 현 중에는 장성과 관련된 수성현도 있다. 연(燕)의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낙랑군과 요동군은 서로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요동군은 진(秦)이 설치하였고, 양평은 요양과 함께 존재한다. 또한 낙랑군에 수성현이 있어서 양평을 수성이라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장성의 동단이 수성과 양평으로 갈기 때문에 수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수성은 수나라 때 명명된 지명이다. 수성은 전국 시기(연) 무수였고, 후위(북위)의 남영주 영웅성(英雄城)이었다가 후제(後齊)는 창려군만 남겼고, 수 개황(開皇581-600) 원년에 주(州)를 옮기고,⁷²⁾ 3년에 신창현으로 옮겼다가, 18년에 수성으로 이름을 고쳤다.

수성의 옛 이름은 무수이다. 후위(後魏)는 남영주(南營州)를 설치하였는데, 영주에 준해서 5군 11현을 두었다: 창려군. 건덕군. 양평·신창은⁷³⁾ 요동군에 속하고, 영락(永樂)은 낙랑군에 속하며, 부평·대방·영안은 영구군에 속한다. 후제는 창려 1군만

69) 『晉書』 卷十四 志 第四 地理上, 遼東國 (秦立爲郡. 漢光武以遼東等屬青州, 後還幽州. 統縣八, 戶五千四百.) 襄平 (東夷校尉所居.) 汶 居就 樂就 安市 西安平 新昌 力城

70) 『三國志』 魏書四 齊王紀, 丙戌, 以遼東汶、北豐縣民流徙渡海, 規齊郡之西安、臨菑、昌國縣界爲新汶、南豐縣, 以居流民.

71) 『漢書』 卷二十八下 地理志 第八下, 樂浪郡, 武帝 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應劭曰 :「故朝鮮國也.」 師古曰 :「樂音洛. 浪音狼.」 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 有雲鄣. 縣二十五, 朝鮮, 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 訃邯, 孟康曰 :「訃音男.」 師古曰 :「訃音乃甘反. 邯音酣.」 溍水, 水西至增地入海. 莽曰樂鮮亭. 師古曰 :「溍音普大反.」 含資, 帶水西至帶方入海. 黏蟬, 服虔曰 :「蟬音提.」 遂成, 增地, 莽曰增土. 帶方, 駟望, 海冥, 莽曰海桓. 列口, 長岑, 屯有, 昭明, 南部都尉治. 鑊方, 提奚, 渾彌, 師古曰 :「渾音下昆反.」 呑列, 分黎山, 列水所出, 西至黏蟬入海, 行八百二十里. 東暉, 應劭曰 :「音移.」 不而, 東(郡)部]都尉治. 蠶台, 師古曰 :「台音胎.」 華麗, 邪頭昧, 孟康曰 :「昧音妹.」 前莫, 夫租.

72) 최은형, (2009). 59쪽: “수(隨)나라 때인 서기 581년께까지 850년 이상 존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73) 『魏書』 卷一百六上 志 第五 地形 志 上: 남영주에서는 태평이다. 영주에 양평.

남기고, 영락·신창 두 현을 거느리고 나머지는 없었다. 개황 원년에 주(州)를 옮기고 3년에 군을 폐하였으나, 18년에 고쳐 수성(遂城)으로 하였다. 용산이 있다.⁷⁴⁾ (수서)

수성고성(遂城故城). 안숙현(安肅縣)의 서쪽에 있다. 전국 연의 무수이다.

『사기』: 조나라 도양왕(趙悼襄王) 2년에 이목(李牧)이 연을 공격한 무수 방성(方城)이다. 『위서지형지』: 남영주는 영희(永熙, 532.12-534) 2년에 설치하였다. 영웅성에 맡겨 설치하였다. (생략). 『수서지리지』: (생략).

『원화군현지』: 현은 북으로 역주에 이르기까지 70리이고, 수나라 개황 3년에 후위(後魏) 신창현(新昌縣)으로 옮겼다. 16년⁷⁵⁾ 수성으로 고쳤다. 현성은 전국시대 무수이다. 후위(魏) 효무(孝武)가 ... 남영주(南營州)를 설치하고, ... 영웅성으로 이름 붙였다.

『태평환우기』: 수성현의 치소는 부산촌이다. 옛 기록에 나오는 버려진 현은 지금 현의 서쪽으로 25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금 수성사이다.⁷⁶⁾ (대청일통지)



<그림7> 수성현의 치소 부산촌, 수성고성

『태평환우기』를⁷⁷⁾ 바탕으로 구글지도에서 현재 부산촌을 대입시켜 보았다. <그림7>

74) 『隋書』卷三十 志 第二十五 地理 中, 遂城舊曰武遂。後魏置南營州, 準營州置五郡十一縣: 龍城、廣興、定荒屬昌黎郡; 石城、廣都屬建德郡; 襄平、新昌屬遼東郡; 永樂屬樂浪郡; 富平、帶方、永安屬營丘郡。後齊唯留昌黎一郡, 領永樂、新昌二縣, 餘並省。開皇元年州移, 三年郡廢, 十八年改為遂城。有龍山。永樂舊曰北平, 後周改名焉。有郎山。飛狐後周置, 曰廣昌。仁壽初改焉。有慄山。有巨馬河。

75) 『隋書』에는 개황 18년으로 되어있다.

76) 欽定『大清一統志』卷十一 保定府二, 遂城故城。在安肅縣西, 戰國時燕之武遂也。史記: 趙悼襄王二年, 李牧攻燕拔, 武遂方城。魏書地形志: 南營州, 永熙二年置, 寄置英雄城。領郡五: 昌黎、遼東、建德、營邱、樂良。縣十一: 龍城、廣興、定荒、太平、新昌、石城、廣都、富平、永安、帶方、永樂。隋書地理志: 後齊唯留昌黎一郡, 領永樂、新昌二縣, 餘並廢。開皇元年州移, 三年郡廢, 十八年改為遂城。元和郡縣志: 縣北至易州七十里, 隋開皇三年移後魏新昌縣於此, 十六年改遂城。按縣城即戰國時武遂地也。後魏孝武以韓瓚為營州刺史, 行達此城, 值盧曹構逆, 就置南營州, 以瓚為刺史, 所部三千餘人並雄武冠時, 因號英雄城。太平寰宇記: 遂城縣令理釜山村。舊志廢縣在今縣西二十五里, 今為遂城社。

77) 『太平寰宇記』卷六十八, 遂城縣 舊二十三鄉今四鄉 戰國時武遂縣也 史記趙悼襄王一年 李牧將攻燕拔武遂是也 本漢北新城縣 漢書地理志云燕南得涿郡之北新城 後漢屬中山國土地 十三州志云河間有新城故加北字 後魏武帝永熙二年 於此置南營州改為新昌縣 隋開皇十六年改為遂城縣 今治釜山村 長城秦築長城起首故此邑之界 遂城山舊名龍山在縣西二十五里,

에서 현재 수성진, 수성촌보다 서북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북송 이전 폐성은 더 서쪽에 있다고 하니, 연진장성의 동단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당시 부산촌이 지금의 부산촌과 같은 곳인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수성현이 지금 서수현(안숙현, 수성촌)과 위치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수성현의 범위가 넓어져서 지금의 안숙현까지 수성현에 속하게 됐다고 해도, 당시의 수성은 지금보다 서북쪽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양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비록 그렇지만 수성고성은 연장성 동단인 수성진과 연결되는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확인을 더 해본다면, 조(趙)가 연(燕)과 바꾼 세 곳의 땅 중에 분문(汾門)이 있다.⁷⁸⁾

분문(汾門) 지금 직예 서수(徐水)현의 치소이다. 전국 조의 땅이다. 양문(梁門)이라고도 한다. ... 『수경』역수 주(注)에 이르기를 그 물은 남으로 무수현의 남쪽을 경유하여, 신성현의 북쪽으로 흐른다. 시속에 또 이르기를 그 물은 무수진이 되었다. 진의 북쪽을 분문이라 한다. 『사기』(조세가) 조가 연에게 준 분문이 이곳이다. 분수문(汾水門)이라고도 한다.⁷⁹⁾ (중국고금지명대사전)

분문은 양문이라고도 하는데, 한 요동군 거취현을 흐르는 “실위수가 북쪽으로 양평현에 이르러 양수(梁水)로 들어간다”는 양수의 양(梁)과 같은 글자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분문이 분수문과 같으니 양문은 양수문(梁水門)과 같다고 하겠다. 수나라 시기의 수성은 무수나 분문보다 서북쪽에 있는 곳을 이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청일통지』에 인용한 수성고성은 현재 서수현 수성과 부산촌 수성, 부산촌보다 더 서북쪽에 있는 수성이 혼합된 것으로 보이며, 이중 양평은 장성의 동단 수성진을 포함하는 안숙현(서수현)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대청일통지』에 한나라 낙랑군 수성현을 인용해 놓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나라의 수성과 한나라의 수성이 같은 곳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⁸⁰⁾ 후(북)위 때 남영주를

78) 『史記』世家 趙世家, 孝成王 十九年, 趙與燕易土: 以龍兌, 汾門, 臨樂與燕: 燕以葛, 武陽, 平舒與趙.

79) 『中國古今地名大辭典』汾門: <백도백과> 汾門: 현재 하북성 서수현 서쪽, 역수의 남쪽에 있다.

【汾門】今直隸徐水縣治。戰國趙地。一稱梁門。〔史記趙世家〕孝成王十九年。與燕易土。以龍兌汾門臨樂與燕。〔舒藝室隨筆〕案水經易水注云。其水南徑武隆縣南。新城縣北。俗又謂是水爲武隆津。津北謂之汾門。史記趙以汾門與燕。卽此也。亦曰汾水門。

80) 『舊唐書』卷三十九 志第十九 地理二, 遂城漢北新城縣, 屬中山國。後魏改爲新昌, 隋末爲遂城, 한나라에 수성이 과연 있었나 의문이 든다.

설치했는데, 영주의 양평이 태평으로 바뀌었다.⁸¹⁾ 남영주는 영주가 함락되고 설치된 주이다. 영희(永熙)는 532년 12월에서 534년까지 2년 1개월 동안 사용된 연호다. 그 때 양평은 이미 고구려의 영토이므로, 남영주에서 양평 대신 태평현이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영주(營州)를 설치한 태연(太延, 435-440) 시기에도, 북위가 양평을 통치했다고 볼 수 없다. 영주의 양평이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연구해봐야 하지만, 한 나라의 양평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쩌면 위에서 살펴본 ‘양평도’의 뜻 그대로 요동성(양평)은 고구려의 영토이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북위 시대에 수성고성(부산촌 수성 또는 더 서북쪽의 고성)은 영웅성이 있던 곳인데, 낙양에서 발견된 묘지명에 낙랑 수성 출신(樂浪 遂城人)이 있다. 묘지명의 주인은 다음과 같다.

안락왕 삼자처 한씨,⁸²⁾ 연창(延昌) 2년(513), 夫人韓氏, 遂城人也.

왕기,⁸³⁾ 정광(正光) 4년(523), 君諱基, 字洪業, 樂浪 遂城人也.

왕정,⁸⁴⁾ 연창(延昌) 4년(515), / 君諱禎, 字宗慶, 樂浪 遂城人也.

원원평처 왕씨,⁸⁵⁾ 영평(永平) 2년(509), 夫人王氏, 樂浪 遂城人也.

윤용구 등은 이들 수성인을 동이계 유민으로 보았다. 부여, 고구려계 및 낙랑, 요동 등 군현의 주민인데 포로로 잡혀 강제 이주된 것이라고 한다.⁸⁶⁾ 이들이 수성현에서 포로로 잡혀 강제 이주 됐을 수도 있지만, 북위와 고구려 교류의 증거로 볼 수도 있다. 고구려 덕흥리 고분에는 “묘주(유주자사 진)의 초상화가 앞칸과 널방에 각각 하나씩 있고 앞칸에는 정사도(政事圖), 유주(幽州) 13군의 태수들, 행렬도 등이 있”다.⁸⁷⁾ 408년 이전에 유주가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증거이며 인적 교류의 자료다.

또한 진(晉) 안제(安帝)는 고구려의 장수태왕(長壽太王)에게 “사지절 도독영주 제군사 정동장군 고려왕 낙랑공(使持節 都督營州 諸軍事 征東將軍 高麗王 樂浪公)”을, 송(宋)은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과 함께 [永初] 3년(422, 장수왕 10) ‘산기상시(散騎常侍)’와 “독·평주·제군사(督平州諸軍事)”를 바쳤다.⁸⁸⁾ 낙랑과 평주가 고구려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호칭이다. 낙랑 수성인들은 요동성 즉 양평인으로 보인다.

81) 『魏書』卷一百六上 志 第五 地形 志 上, 南營州, 孝昌中, 營州陷, 永熙二年置. 寄治英雄城. ... 遼東郡(永熙中置). ... 太平, 新昌.; 營州(治和龍城. 太延二年爲鎮, 眞君五年改置. 永安末陷, 天平初復.) ... 遼東郡 ... 襄平(二漢·晉屬, 後罷. 正光中復. 有青山.) 新昌

82) 大魏揚列大將軍太傅大司馬安樂王 第三子給事君夫人 韓氏之墓誌

83) 魏故處士王君墓誌銘

84) 魏故恒州治中晉陽男 王君墓誌銘

85) 魏黃鉞大將軍太傅大司馬安定靖王 第二子給事君 王氏之墓誌

86) 윤용구, 「북위대 낙랑 · 고구려계 이주민 - 평성 출토 문자자료를 중심으로 -」, 『동서인문』 (17), (2021).

87) <동북아역사넷>, 德興里壁畫古墳, “1976년에 발굴된 덕흥리 벽화고분은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 위치한 408년의 기년명(紀年銘)이 있는 고분이다. 또한 명문(銘文)에 의해 그 피장자(被葬者)가 유주자사(幽州刺史)를 지낸 진(鎭)이라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88) 『南史』卷七十九 列傳 第六十九 夷貊 下 高句麗, 晉安帝 義熙九年, 高麗王高璉遣長史高翼奉表, 獻赭白馬, 晉以璉爲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麗王·樂浪公. 宋武帝踐阼, 加璉征東大將軍, 餘官並如故. 三年, 加璉散騎常侍, 增督平州諸軍事.

한이 설치한 사군은 조선, 진번, 임둔 등 조선계 거수국들이 있던 지역이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요동과 현도, 낙랑 등지의 회복에 힘을 쏟았다. 고구려가 양평을 비롯한 요동, 유주를 영토화하고 복위와 교통하면서 살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며, 『무경총요』에 “진이 쌓은 장성의 기점이기 때문에 수성이라”⁸⁹⁾ 한 기록을 따르면 낙랑군 수성현은 영웅정보다 남쪽에 위치한 지금 수성진 근방으로 보여진다. 한나라 시기 양평과 수성에 대한 위치 관계를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두 현이 인접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시기 양평은 수성진을 포함한 더 큰 행정단위였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수나라 때 보이는 수나라의 수성보다 남쪽에 있는 연장성 동단 수성진을 포함한 안숙현과 어찌면 더 큰 영역을 당시 ‘양평도’라고 본다.

IV. 우북평군, 평주

공손도(公孫度, ?-204)는 후한 말 혼란기에 독자 세력을 구축한 인물이다. “본래 요동군 양평 사람”으로 부친 공손연(公孫延)을 따라 “현도군에 거주”하게 되었고, 당시 현도 태수 공손역의 도움을 받아 “요동태수가 되었다.”⁹⁰⁾ 그는 또 요동후와 평주목이 되었다가 나중에 스스로 요동의 왕이 되었다.⁹¹⁾ 그는 임지로 부임받아 가는 낙랑태수 양무(涼茂)를 억류하기도 하였다. 요동군 양평, 현도군, 낙랑태수 등 모두 한나라 행정명과 일치한다.

도(度)가 양무 및 여러 장군들에게 일러 가로되, “조공(曹公, 曹操)의 원정을 들으니 업(鄴)에 방비가 없다. 지금 나는 보졸 3만과 기병 만 필로, 바로 업을 치려고 하는데,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⁹²⁾ (삼국지)

공손도는 업을 치겠다고 호언을 하는데, 업은 하북성 한단시(邯鄲市) 임장현(臨漳縣)과 하남성 안양시(安陽市) 경계에 위치한 곳이다.⁹³⁾ 만약 요동군과 현도군이 요하 경계에 위치하였다면, 하남과 하북의 경계인 업의 사정에 그렇게 밝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보졸 3만과 기마 만 필을 이끌고 치러 오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89) 『武經總要前集』邊防一上, 廣信軍, 治遼城縣, 戰國時武遼縣地, 秦築長城所起, 因名遼城. 宋建軍.

90) 『後漢書』卷八十一 獨行列傳 第七十一, (王烈) ... 魏志曰:「公孫度字(叔)[升]濟, 本遼東襄平人. 度父延, 避吏居玄菟, 任爲郡吏. 時玄菟太守公孫(域)[域]子豹, 年十八, 早死, 度少時名豹, 又與[(域)域]子同年, (域)[域]見親哀之, 遣就師學, 爲娶妻. 後舉有道, 除尙書郎, 遼東太守.」

91) 『三國志』卷八 魏書 八 二 公孫陶四張傳 第八, (公孫度) 分遼東郡爲遼西 中遼郡, 置太守. 越海收東萊諸縣, 置營州刺史. 自立爲遼東侯·平州牧, 追封父延爲建義侯. 立漢二祖廟, 承制設壇墠於襄平城南, 郊祀天地, 藉田, 治兵, 乘鸞路, 九旒, 旄頭羽騎. 太祖表度爲武威將軍, 封永寧鄉侯, 度曰:「我王遼東, 何永寧也!」藏印綬武庫. 度死, 子康嗣位, 以永寧鄉侯封弟恭. 是歲建安九年也.

92) 『三國志』卷十一 魏書 十一 袁張涼國田王邴管傳 第十一, (涼茂) ... 轉爲樂浪太守. 公孫度在遼東, 擅留茂, 不遣之官, 然茂終不爲屈. ... 度謂茂及諸將曰:「聞曹公遠征, 鄴無守備, 今吾欲以步卒三萬, 騎萬匹, 直指鄴, 誰能禦之?」諸將皆曰:「然.」

93) <위키백과> 업(지명): 후조·염위·전연·동위·북제의 수도였던 업은 현재의 허베이성 한단시 린장현과 허난성 안양시의 경계에 위치하였다.

그렇다면 공손도의 평주는 어디일까? 『진서』는 한나라 우북평군이라고 한다.

평주(平州)는, 우공(禹貢)을 살피건대 기주(冀州)의 영역이고, 주(周)나라에서는 유주의 경계이며, 한(漢) 때에는 우북평군에 속하였다. 후한 말에는 공손도가 스스로 평주목(平州牧)이라 불렀다. ... 위(魏)나라는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설치하여 양평에 거하였고, 요동 창려 현도 대방 낙랑 등 5개의 군을 나누어 평주로 하였고 후에 유주와 합하였다. 공손연(文懿)이 망한 후에 호동이교위(護東夷校尉)로 하여 양평에 거하였다. 함녕(咸寧, 275-280) 2년 10월에 창려 요동 현도 대방 낙랑 등 다섯 군국으로 나누어 평주를 설치하였다.⁹⁴⁾ (진서)

평주는 은나라 때에 고죽국, 춘추 시기에 산융(山戎), 비자(肥子) 두 나라의 땅이었다. 전국 시기에는 연에 속하였는데, 진(秦)나라 때에 우북평 및 요서 두 군의 지경이 되었고, 이한(前後漢)이 이를 따랐다. 진(晉) 때는 요서군에 속하였다. 후위 역시 요서군이라 하였다. 수 초에 평주를 두었다. 양제 초에 폐하였다가, 북평군으로 복치하였다. 당도 따랐다. 3개 현이 있다. 노룡(盧龍), 석성(石城), 마성(馬城)이다.⁹⁵⁾ (통전)

우북평군 진(秦)이 설치하였다. 왕망은 북순(北順)이라 하였다. 유주에 속한다. 호수는 66,689이며, 인구는 320,780인이다. 16개 현이 소속되어 있다.

평강, 무종(無終): 옛 무종자국이다. 석성, 정릉, 준미 자, 서무, 토은, 백랑, 석양, 창성, 여성현(驪成縣): 대걸석산(大揭石山)이 현의 서남쪽에 위치한다. 왕망은 걸석이라 하였다. 광성, 취양, 평명⁹⁶⁾ (한서)

전주(田疇)의 자는 자태(子泰)이고 우북평(右北平) 무종(無終) 사람이다. 독서를 좋아하고 검술이 뛰어나다.⁹⁷⁾ (삼국지)

94) 『晉書』 卷十四 志 第四 地理上, 平州. 案禹貢 冀州之域, 於周爲幽州界, 漢屬右北平郡. 後漢末, 公孫度自號平州牧. 及其子康·康子文懿並擅據遼東, 東夷九種皆服事焉. 魏置東夷校尉, 居襄平, 而分遼東·昌黎·玄菟·帶方·樂浪五郡爲平州, 後還合爲幽州. 及文懿滅後, 有護東夷校尉, 居襄平. 咸寧二年十月, 分昌黎·遼東·玄菟·帶方·樂浪等郡國五置平州. 統縣二十六, 戶一萬八千一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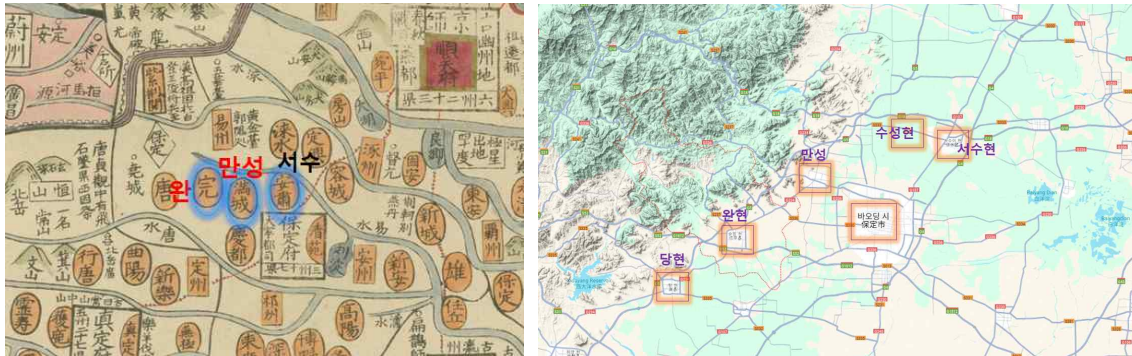
95) 『通典』 州郡八 古冀州, 平州今理盧龍縣. 殷時孤竹國. 春秋山戎、肥子二國地也. 戰國時屬燕. 秦爲右北平及遼西二郡之境, 二漢因之. 晉屬遼西郡. 後魏亦曰遼西郡. 隋初置平州, 煬帝初州廢, 復置北平郡. 大唐因之. 領縣三: 盧龍(漢肥如縣. 有碣石山, 碣然而立於海旁, 故名之. 晉太康地志云:「秦築長城, 所起自碣石, 在今高麗舊界, 非此碣石也.」) 漢遼西郡故城在今郡東. 又有漢令支縣城. 臨閭關今名臨榆關, 在縣城東一百八十里. 盧龍塞在城西北二百里.) 石城. 馬城

96) 『漢書』 卷二十八下 地理志 第八下, 右北平郡. 秦置. 莽曰北順. 屬幽州. 戶六萬六千六百八十九, 口三十二萬七百八十. 縣十六, 平剛, 無終, 故無終子國. 溇水西至雍奴入海, 過郡二, 行六百五十里. 師古曰:「溇音庚. 卽下所云入庚者同一水也.」石成, 廷陵, 莽曰鋪武. 俊靡, 溇水南至無終東入庚. 莽曰俊靡. 師古曰:「溇音力水反, 又音郎賄反.」薺, 都尉治. 莽曰哀睦. 師古曰:「音才私反.」徐無, 莽曰北順亭. 字, 榆水出東. 土垠, 師古曰:「垠音銀.」白狼, 莽曰伏狄. 師古曰:「有白狼山, 故以名縣.」夕陽, 有鐵官. 莽曰夕陰. 昌城, 莽曰淑武. 驪成, 大揭石山在縣西南. 莽曰揭石. 師古曰:「揭音桀.」廣成, 莽曰平虜. 聚陽, 莽曰篤睦. 平明. 莽曰平陽.

97) 『三國志』 卷十一 魏書 十一 袁張涼國田王邴管傳 第十一, (田疇)田疇字子泰, 右北平 無終人也. 好讀書, 善擊劍.

전주(田疇)의 자는 자태(子泰)이고 북평(北平) 완현(完縣) 사람이다. 독서를 좋아하고 검술이 뛰어나다.⁹⁸⁾ (보정군지)

『삼국지』에 전주(田疇)는 우북평 무종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명나라 때의 『보정군지』에는 북평 완현 사람이라고 한다. 완현은 현재 보정시 순평현(順平縣)이다. 우북평 무종이 완현, 현재 보정시 순평현이라는 말이다.



<그림8> 완현/만성/안숙(서수현)

한나라 우북평군은 진과 후위의 요서군이고, 수에서 평주를 두었다가 북평군으로 복치하였고, 당에서도 북평군을 두었다.

후위(북위) 요서군에는 비여(肥如), 양락(陽樂), 해양(海陽)의 3개현이 있는데, 비여현에 갈석과 유하가 있다.⁹⁹⁾ 갈석은 본 연구에서 낭야산의 특정한 곳이라 보았고, 한나라 우북평에서는 여성현에 갈석이 있다. 그렇다면 유하는 어디일지 살펴보겠다.

『수경주』에서 유수(濡水)를 찾아보면, 역수,¹⁰⁰⁾ 구수,¹⁰¹⁾ 거마하와¹⁰²⁾ 연관 있게 검색된다.¹⁰³⁾ <그림4>에서 거마하, 역수, 구수, 호타하를 볼 수 있다. 모두 태항산맥 동쪽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강이다. 또한 유하(濡河)는 『수경주』 유수에 보이는데, “유하는 또한 동남쪽으로, 물이 돌아 구부러져(迴曲) 흐르는데, 그것을 곡하(曲河)라 한다. 어이진(鎮) 동북 300리, 또 동쪽으로 골짜기(峽)를 나와 안주(安州)의 경계로 들어가

98) Wikimedia commons, SSID-10488285_天一閣藏明代方志選刊_弘治保定郡志_河北省.pdf, p.327.

田疇字子泰，北平完縣人也。好讀書善擊刺。

99) 『魏書』卷一百六上 志 第五 地形 志 上，平州 (晉置。治肥如城)。領郡二 縣五 戶九百七十三 口三千七百四十一。遼西郡 (秦置)。領縣三 戶五百三十七 口一千九百五，肥如 (二漢·晉屬。有孤竹山祠·碣石·武王祠·令支城·黃山·濡河)。陽樂 (二漢·晉屬。眞君七年併令支含資屬焉。有武歷山·覆舟山·林榆山·太眞山)。海陽 (二漢·晉屬。有橫山·新婦山·清水)。北平郡 ...

100) 『水經注』卷十一 易水，易水又東與濡水合

101) 『水經注』卷十一 滹水，滹水出代郡靈丘縣高氏山，即滹夷之水也，出縣西北高氏山。... 故《地理志》曰：蒲水、蘇水，竝從縣東入濡水。又東北逕樂城南，又東入博水，自下博水亦兼濡水通稱矣。《春秋·昭公七年》，齊與燕盟于濡上。杜預曰：濡水出高陽縣東北，至河間鄭縣入易水。是濡水與滹沱、滹、易互舉通稱矣。博水又東北，徐水注之，水西出廣昌縣東南大嶺下。

102) 『水經注』卷十二 巨馬河，《地理志》曰：涑水東南至容城入于河。河，即濡水也，蓋互以明會矣。巨馬水于平舒城北，南入于滹沱，而同歸于海也。

103) 요수를 난하라고 주장하는 논거의 맹점은 유수 즉 난하이다. 윤내현은 난하를 중점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유수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고, 동남쪽으로 흘러 어양군 백단현(白檀縣) 옛 성을 지난다.”라고 하였다.¹⁰⁴⁾ <태청 광여도>에 보정부 안주(安州) 남쪽으로 유수가 보인다. 『수경주』에 따르면 유하이다,



<그림9> 보정부를 흐르는 유하¹⁰⁵⁾

북평군(北平郡, 秦置). 2개현, 조선. 신창. 노룡산(盧龍山)이 있다.¹⁰⁶⁾ (위서)

북평군 옛 평주에 설치하였다. 노룡 옛 북평군에 설치하였다. 신창, 조선 2개 현이다. 후제에 조선을 없애고 신창에 넣었다. 또 요서군을 없애 해양현 비여에 넣었다. 개황 6년 비여를 없애고 신창에 넣었다. 18년 이름을 노룡으로 바꾸었다. 대업(大業, 605-618) 초에 북평군을 설치하였다. 장성(長城)이 있다. 관관(關官)이 있다. 임유궁(臨渝宮). 복주산(覆舟山). 갈석(碣石)이 있다. 현수·노수·온수(玄水·盧水·溫水: 「涅」을 수경주 유수(濡水)에 의거¹⁰⁷⁾ 고침)가 있다. 閼水·龍鮮水·巨梁水.(巨梁水: 「臣」을 수경주 포구수(鮑邱水)에 의거¹⁰⁸⁾ 고침) 해(海)가 있다.¹⁰⁹⁾ (수서)

미·기(尾·箕), ... 분야(其分野): 발해에서 구하(九河)의 북이다. 하간(河間), 탁군(涿郡), 광양국(廣陽國)과, (한 발해군 부양(浮陽)은 지금 청지현(淸池縣)으로¹¹⁰⁾ 창주에

104) 『水經注』卷十四 濡水, 濡水又東南, 水流迴曲, 謂之曲河。鎮東北三百里, 又東出峽入安州界, 東南流逕漁陽白檀縣故城。

105) 『大清廣輿圖』, 보정부 안주(安州)와 유수(수경주 유하)

106) 『魏書』卷一百六上 志 第五 地形 志 上, 平州 ... 北平郡 (秦置). 領縣二 戶四百三十 口一千八百三十六. 朝鮮 (二漢·晉屬樂浪, 後罷. 延和元年徙朝鮮民於肥如, 復置, 屬焉). 昌新 (前漢屬涿, 後漢·晉屬遼東, 後屬). 有盧龍山.

107) 『水經注』卷十四 濡水, 晉既滅肥, 遷其族于盧水. 盧水有二渠, 號小沮、大沮, 合而入于玄水. 又南與溫水合, 水出肥如城北, 西流注於玄水.

108) 『水經注』卷十四 鮑丘水, 鮑丘水從塞外來, 南過漁陽縣東, 鮑丘水出禦夷北塞中 鮑丘水又東, 巨梁水注之

109) 『隋書』卷三十 志 第二十五 地理 中, 北平郡 舊置平州. 統縣一, 戶二千二百六十九. 盧龍 舊置北平郡, 領新昌·朝鮮二縣. 後齊省朝鮮入新昌, 又省遼西郡并所領海陽縣入肥如. 開皇六年又省肥如入新昌, 十八年改名盧龍. 大業初置北平郡. 有長城. 有關官. 有臨渝宮. 有覆舟山. 有碣石. 有玄水·盧水·溫水·(溫水「溫」原作「涅」, 據水經一四濡水注改.) 閼水·龍鮮水·巨梁水. (巨梁水「巨」原作「臣」, 據水經一四鮑邱水注改.) 有海.

110) <百度百科> 淸池縣, 唐武德四年(621)以隋圃田縣城故址置. 治所在今中牟縣西16公里西古城村. 即春秋淸邑城, 亦稱淸人城. 《水經注》: “淸池水出淸陽亭西南平地, 即故淸人城也.” 屬管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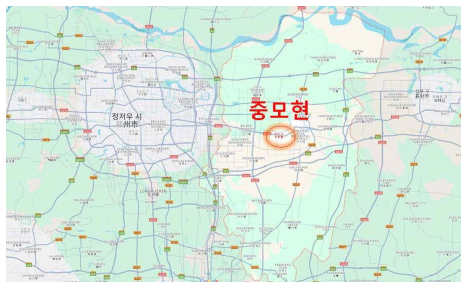
속한다. 탁군의 요양(饒陽)은 지금 영주(瀛州)에 속하고, 탁현(涿縣)·량향(良鄉)·광양국(廣陽國)·계현(薊縣)과 더불어 지금 유주이다.) 상곡·어양·우북평·요동·낙랑·현도, (어양은 유주에 있고, 우북평은 백랑무종현(白狼無終縣)에 있고, 수 시대에 어양군이 되었고, 옛 고죽국인데 후에 북평군을 설치했다. 지금 평주이다. 요동은 무려현(無慮縣)에 있고, 즉 주례(周禮) 의무려산이다. 낙랑은 조선현에 있고, 현도는 고구려현에 있다. 지금 모두 동이가 있다.) 옛 북연·고죽·무종 및 동방 구이의 나라이다.¹¹¹⁾ (구당서)

평주북평군 3개 현이다. 부(府)는 노룡, ... 자몽, 백랑, 창려, 요서 등 12개 수(戍)가 있다.¹¹²⁾ (신당서)

북평고성은 완현 동북에 있다. 한의 북평현은 지금 만성현(滿城縣) 경계에 있다. 후위에서 북평군으로 고쳐 여기에 설치하였다.¹¹³⁾ (대청일통지)

영락고성은 만성현 서북 어조산 아래 있다. 후위 흥화(興和, 539-542) 2년에 두었다. 낙랑군에 속한다. 북제(北齊) 창려군에 속하고, 후주(後周)는 북평고성으로 옮겨 이 성은 폐하였다.¹¹⁴⁾ (대청일통지)

이상 공손도의 평주를 더듬어보니, 유수(濡水)와 관련 있는 물길이 모두 태항산맥 동쪽에서 발해쪽으로 나가는 강들이고(<그림4>), 유하((濡河)는 「대청광여도」(濡水)에



하남성 정주시(鄭州) 동쪽이다.

111) 『舊唐書』卷三十六 志 第十六 天文 下, 尾·箕, 析木之次也. 寅初起尾七度, 二千七百五十分, 秒二十一少. 中箕星五度, 三百七十分, 秒六十七. 終斗八度. 其分野: 自渤海 九河之北, 盡河間·涿郡·廣陽國, (漢渤海郡浮陽, 今爲清池縣, 屬滄州. 涿郡之饒陽, 今屬瀛州. 涿縣·良鄉與廣陽國薊縣, 今在幽州.) 及上谷·漁陽·右北平·遼東·樂浪·玄菟, (漁陽在幽州. 右北平在白狼無終縣, 隋代爲漁陽郡, 古孤竹國, 後置北平郡, 今爲平州. 遼東在無慮縣, 卽周禮醫無閭山. 樂浪在朝鮮縣, 玄菟在高句驪縣, 今皆在東夷也.) 古之北燕·孤竹·無終及東方九夷之國, 皆析木之分也, 尾得雲漢之末流, 北紀之所窮也. 箕與南斗相近, 故其分野在吳·越之東.

112) 『新唐書』志第二十九 地理三, 平州北平郡, 下. 初治臨渝, 武德元年徙治盧龍. 土貢: 熊[口]郭、蔓荊實、人. 戶三千一百一十三, 口二萬五千八十六. 縣三: 有府一, 曰盧龍. 有盧龍軍, 天寶二載置; 又有柳城軍, 永泰元年置; 有溫溝、白望、西狹石、東狹石、綠疇、米磚、長楊、黃花、紫蒙、白狼、昌黎、遼西等十二戍, ...

113) 欽定『大清一統志』卷十一 保定府二, 北平故城在完縣東北. 漢北平縣在今滿城縣界, 後魏改置北平郡於此.

114) 欽定『大清一統志』卷十一 保定府二, 永樂故城在滿城縣西北魚條山下 後魏興和二年置 屬樂浪郡 北齊屬昌黎郡 後周移治北平故縣而此城廢.; 『保定府志』卷7至卷12, 元和郡縣志 滿城縣本漢北平縣 高祖以張蒼爲拙偶佐後 魏於此置永樂縣 天寶元年改爲滿城縣 以縣北故肺爲名屬.

서 보정시 안주 남쪽을 흐르는 강으로 표시되었다. 한(漢) 우북평 무종(無終)은 완현으로 현재 하북성 순평현(<그림8>)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평주(북평군)의 장성은 연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갈석은 낭야산의 어느 곳이며, 장성의 동단, 양평은 수성(서수, 안숙현)과 들어맞는다. 연장성이 있는 곳은 요나라와 송나라의 경계 이전에 동호가 웅거한 곳이었다.

요하 동쪽 요양이 양평일 가능성과 난하 동쪽에 양평이 있을 가능성에 비해 수성이 양평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곳은 또 고구려가 일어난 곳이라 기록된 요수, 소수(蘇水),¹¹⁵⁾ 양수(梁水)¹¹⁶⁾ 등의 강 이름이 보이는 곳이다. 양평이 현재 서수현 일대라고 본다면, 고구려가 발갈지간에 모여 있다는 수양제의 조서와 내용이 같고, 동서 6천 리의 영토와도 합치된다.

V. 맺음말

본고는 고구려의 요동성, 일명 오렐홀이 한의 요동군 양평성이라는 기록(『삼국사기』)과 당대 기록인 <광개토태왕의 비문>에 보이는 양평도(襄平道)와, 수당 시기에 고구려의 영토가 동서 6천 리라는 『통전』 기록, 발갈지간에 고구려의 무리가 모여 들었다는 수양제의 조서 내용을 근거 삼아, 한의 양평을 비정하고, 고구려 최대 영토의 서쪽 경계를 유추해 보았다.

양평은 연(진)장성의 동단으로, 요동군, 갈석(산), 요수, 낙랑군 수성현, 무수현과 같은 곳이거나 함께 지역을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연남장성이라고 불리는 낭야산-수성까지 이어진 장성을 연장성(조양에서 양평)이라고 보았다. ①연의 전성기는 소왕 당대에 끝나, 원거리의 장성을 쌓을 시간과 능력이 없었다. ②진한지간에 자몽의 들에 거주한 동호의 거주지가 연장성 근처이다.

연장성은 갈석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갈석은 낭야산의 어느 특정한 곳으로 볼 수 있다. ①태행산, 향산, 갈석산으로 이어지고, 갈석에서 여러 하천이 해(海)로 들어간다. (향수, 위수, 호타수, 구수, 역수가 향산과 갈석에 가깝다) ②갈석에서 연하도 남쪽에 있는 황금대가 보인다. ③해안선이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우공이 치수하던 시절 갈석은 해안 가까이 있었고, 전후한(漢) 시기 갈석에서 해(海)가 보였다. ④폭하(남역수) 북쪽에 요수촌(潦水村)이 있다.

이상을 근거로 연남장성이 바로 연(진)장성이고, 양평은 수성진을 포함하는 행정단위(안숙현)로 보았다.

한나라의 요동군에는 치소로 생각되는 양평이 있고, 요양도 있다. 학계의 보편적인 통설대로 양평을 요양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최은형이 “요양은 옛 양평이 아

115) 『水經注』 卷十一 滹水, 滹水出代郡靈丘縣高氏山, 即滹夷之水也, 出縣西北高氏山。... 故《地理志》曰: 蒲水、蘇水, 竝從縣東入濡水。

116) 『水經注』 卷十四 鮑丘水, 鮑丘水從塞外來, 南過漁陽縣東, 鮑丘水出禦夷北塞中 鮑丘水又東, 巨梁水注之. 대양수와 거양수는 같은 강일 것이다.

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요양에 대량수(大梁水)가 흘러, 양평을 흐르는 양수(梁水)가 그 지류이거나 같은 강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인접해 있을 수는 있지만, 요양이 양평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낙랑군 수성현이 있어 양평이 과연 수성과 같은 곳인가 하는 데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수성이란 지명은 수나라 개황 18년(598)에 보인다. 연나라 때는 무수현이고, 분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나라 수성과 연나라 무수와는 중심지역에 차이가 보인다. 즉 지금 연장성 기점인 수성과 부산촌의 수성과 그보다 서북쪽 25리를 더 간 수성이 찾아진다. 『무경총요』에는 “장성이 일어난 곳이라 수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인지 낙양에 소재한 후(북)위 시대 묘지명에 ‘낙랑 수성인’이 발견된다. 이들은 당시 고구려 영토를 확인해 봤을 때, 북위와 교류한 요동성 사람들일 것으로 보인다.

공손도는 양평 사람으로 요동후, 평주목, 요동왕이 되었다. 공손도의 평주를 살펴보면 갈석과 장성이 나온다. 평주는 ①전국/연(燕) 속 ②진(秦)/우북평과 요서 ③한(漢)/진(秦)과 같고, 우북평 ④후한/진과 같고, 말엽에 공손도가 평주목이라 하였다. ⑤위(魏)/동이교위(양평 거) 요동, 창려, 현도, 대방, 낙랑 5군. 공손연 망한 후/호동이교위(양평 거) 창려, 요동, 현도, 대방, 낙랑 5군국 ⑥진(晉)/요서군 ⑦후위(後魏)/요서군 ⑧수/평주->북평군 ⑨당/북평군으로 정리할 수 있다.

평주는 한나라 우북평이다. 여성현에 갈석이 있고, 무종현은 보정 완현이다. 후(북)위 요서군 비여현에 갈석과 유하가 있다. 유수는 태항산맥 동쪽에 있고, <대청광여도>에 따르면 유하는 보정 안주(安州) 남쪽에 흐른다. 후위(북위) 낙랑군에 속하는 영락이 만성에 있으며, 당나라 자몽이 연장성 인근에 있다. 모두 보정을 가리키고 있다. 이상은 갈석이 장성보다 남쪽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연장성 위치에 변함은 없다.

따라서 양평은 안숙현 지금 서수현(수성)이거나 더 넓은 행정구역으로 보이며, 그렇게 본다면, 고구려의 서계는 발갈지간이고, 수(隋)와 대립하던 시기에 동서 6천 리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隋) 개황 18년에 이름을 수성이라 고치기 전까지,¹¹⁷⁾ 양평이란 지명이 사용되었으나, 고구려가 양평을 점거하였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한나라의 양평이 아닌, 지명만 빌어 양평이라 했을 것이고, 양평이란 지명을 피한 이유도 그와 같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양평이 고구려 영토가 된 이후에도 그들 지리서에 양평을 기입한 이유는 그 곳이 한의 사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 (고)조선의 영토임은 잊은채, 한의 영토라는 기억만 주장한 결과가 아닐까?

연구는 주로 문헌을 기준으로 지도를 활용하였다. 앞으로 이에 따른 고고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¹¹⁸⁾ ‘평주’에 대한 연구가 깊이 다뤄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이후를 기약한다.

117) 『隋書』卷三十 志 第二十五 地理 中, 遂城...; 최은형, (2009), 78쪽. “요동군 양평은 한 이전인 연·진때부터 있던 지명으로 수 개황 원년(581)에 없어졌으며...”

118) 김호림, 『고구려가 왜 북경에 있을까』, (서울: 글누림출판사, 2012) 그 외 중국에 거주하며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史記』, 『漢書』, 『戰國策』, 『尚書注疏』, 『三國志』, 『後漢書』,
『山海經』, 『北史』
『淮南鴻烈解』 (<https://ctext.org/wiki.pl?if=gb&res=276749>)
『水經注』 (<https://ctext.org/shui-jing-zhu/zh>),
『魏書』 (<https://ctext.org/wiki.pl?if=gb&res=403341>)
『晉書』 (<https://ctext.org/wiki.pl?if=gb&res=257279>)
『通典』 (<https://ctext.org/tongdian/zh>),
『隋書』 (<https://ctext.org/sui-tang/zh>)
『舊唐書』 (<https://ctext.org/wiki.pl?if=gb&res=456206>)
『新唐書』 (<https://ctext.org/wiki.pl?if=gb&res=182378>)
『武經總要前集』 (<https://ctext.org/wiki.pl?if=gb&res=110312>)
『太平寰宇記』 (<https://ctext.org/wiki.pl?if=gb&res=304134>)
『資治通鑑』
『保定郡志』 (Wikimedia commons, SSID-10488285_天一閣藏明代方志選刊_弘治保定郡志_河北省.pdf)
『全唐詩』 (<https://ctext.org/quantangshi/zh>)
『大清一統志』 (<https://ctext.org/wiki.pl?if=gb&res=373118>)
『保定府志』 (<https://ctext.org/wiki.pl?if=gb&res=92280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zh>)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Main_Page)

(단행본)

김호림, 『고구려가 왜 북경에 있을까』, (서울: 글누림 출판사, 2012)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론』, (서울: 도서출판 만권당, 2017)
리지린, 『고조선연구』, (서울: 도서출판 말, 2020)
귀다순(郭大順), 장성덕(張星德), 김정열(譯), 『동북문화와 유연문명·하』,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ト箕大, 『韓國古代史の政體』 (東京: えにし書房, 2018).
譚其驤(主編), 『中国历史地图集』 第六册 (朱辽金时期), (북경: 中国地图出版社出版, 1996).
『中国古今地名对照表』 (<http://www.laozhaopian5.com/ditu/diming/>)
『中國古今地名大辭典』
『大清廣輿圖』
長久保赤水(Nagakubo, Sekisui)著, 『唐土歴代州郡沿革地圖』, (1789)
<https://rmda.kulib.kyoto-u.ac.jp/item/rb00011413#?c=0&m=0&s=0&cv=5&r=0&xywh>

[=-5620%2C-178%2C16854%2C4098](#)

Michael Loewe and Edward L. Shaughnessy,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논문)

김수지, 「민족사학계의 ‘고대요수(遼水)’와 ‘패수(溍水)’ 위치비정 비교 -리지린과 윤내현 학설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와융합』 6, 2020.

朴仙姬, 「조양 袁台子村 벽화묘의 국적과 고구려의 영역 확대」, 『고조선단군학』 (31), 2014.

박종민(Jong-Min Park), 「지리학과 역사학의 융합으로 본 요동성의 위치」, 『역사와 융합』, (), 2021.

宋眞, 「戰國、秦、漢시기 遼東郡과 그 경계」, 『한국고대사연구』 76, 2014.

오현수, 「『회남자』기재 ‘갈석’과 ‘요수’를 통해 본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 『한국학(구 정신 문화연구)』 35(4), 2012.

윤용구, 「북위대 낙랑 · 고구려계 이주민 - 평성 출토 문자자료를 중심으로 -」, 『동서인문』 (17), 2021.

윤내현, 「朝、燕戰爭의 전개와 국경 변화」, 『고조선단군학』 20, 2009.

이기훈, 「한(漢)부터 당(唐)까지의 발해(渤海) 위치 재고(再考)」, 『역사와융합』, 2024.

이기훈, 「평양과 발해만 북부 갈석산 비정의 문제점 - 진·한(秦·漢) 시기 발해(渤海)와 요동(遼東)의 위치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고대학』 72, 2023.

임기환,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고구려발해연구』 45, 2013.

임찬경, 「『수경주(水經注)』를 통한 고구려 평양의 위치 검토」, 『국학연구』 21, 2017.

임찬경, 「612년 고구려-수(隋) 전쟁에서 요수, 요동성, 압록수, 살수, 평양의 위치 비정 - 『중국역사지도집』의 612년 지도 비판 및 재구성 -」, 『국학연구』 24, 2020.

장우순, 문치웅, 「고대의 요수와 요동」, 『고조선단군학』 39, 2018.

장우순, 문치웅, 「고대 갈석산의 위치 연구」, 『고조선단군학』 38, 2018.

조진선, 「燕下都의 造營과 都城 機能의 變遷」, 『한국고고학보』 96, 2015.

최진열, 「후연(後燕) ‘용성시대(龍城時代)’의 정치적·경제적 자멸(自滅)」, 『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최은형, 「“遼陽은 옛 襄平이 아니다” 역사왜곡 우려되는 ‘요양=양평설」, 『백산학보』 85, 2009.

Zhuang, Yijie & Kidder, Tristram, “Archaeology of the Anthropocene in the Yellow River region, China, 8000-2000 cal. BP.” *The Holocene*, 24, 2014.

위키백과(한국, 중국, 영문), 百度百科

百度地圖, 구글지도

【Abstract】

Study on Liadongseong Fortress (Xianping) to speculate the location of the western border of Goguryeo

Khil, Leesuk

(Inha University, Archaeology as Interdisciplinary Science)

There are records regarding Xiangpingdao(襄平道) and its territory and border in <Epitaph of King Gwanggaeto the Great>, Liadongseong Fortress of Goguryeo as Xiangpingseong Fortress of Han Dynasty in 『Samguk Sagi(三國史記)』, and the territory of Goguryeo from east to west as 6,000 li in Sui and Tang Dynasties in 『Tong dian(通典)』.

In this article, the western border of Goguryeo was speculated by studying the location of Liadongseong Fortress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gaeto the Great when the territory was expanding.

Xiangping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Yan-Qin Great Wall. This articl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Yan-Qin Great Wall based on the literature. Jieshi is an important mark and it is thought to be a specific peak of Langya Mountain. Yannam-south Great Wall in the present regarded as a great wall between Zaoyang and Xiangping, so Xiangping is designated in Ansuxian County (Xushuixian County) by comparing it with other places.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area of Pingzhou of Gongsun Du(公孫度) and Beipingjun County afterward, it is thought that Pingzhou was Baoding and its vicinity. Epitaph of Suicheng people of Lelang, which was found in Luoyang is the evidence that people of Liadong of Goguryeo who were the residents of Xiangpingseong Fortress communicated with Hou wei.

Because Xiangping in Houwei Yingzhou is not thought to be Liadong of Goguryeo, and there might be a geographical difference between Xiangping at that time and Xiangping of Han, it is possible that it divided and ruled the half of Baoding and its vicinity with Goguryeo. From these studies, it is speculated that at least the western border of Goguryeo was between Bohai and Jieshi, including the part of Baoding.

Keywords :

Xiangping, Liaodongseong Fortress, Suicheng, Jieshi (Mountain), Yan-Qin Great Wall, Pingzhou